

GSES 칼럼



김광중 교수

‘도시재생(都市再生)’이란 도시의 쇠퇴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노력이다. 도시의 번영과 쇠퇴는 도시역사와 늘 함께 해온 현상이어서 도시재생의 노력 또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용어가 정부시책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영국 정부가 ‘도시재생보조금(urban regeneration grant)’ 제도를 만든 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후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0년대 초

도시재생에 대한 단상(斷想)

반 일본정부가 영국식 명칭을 그대로 차용하여 도시재생정책을 도입하였고, 한국 정부도 7개년에 걸친 대규모 도시재생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학계에서도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쇠퇴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적 성찰은 이제 시작되는 듯하다. 오히려 외국의 도시재생에 대한 기계적이고 답습적인 처방이 쉽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생노력으로 접목되고 있다. 흔히 록봉기 헬스와 같은 입체복합시설이 쇠퇴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처방으로 제시되며, 빌바오나 두바이가 벤치마킹해야 할 성공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관광개발, 도시마케팅, 문화의 상품화 같은 처방이 지역의 특성이나 재생의 역량과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주제적 인식이 결여될 때, 문제인식과 처방은 비합리적이거나 때로 억측적으로 연계되기 쉽다.

한편 도시재생 논의는 몇 가지 희망을 준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도시쇠퇴의 과정(process)에 대한 주목이다. 도시쇠퇴를 물리적 낙후라는 결과에 주목하던 과거의 문제인식에서 벗어나 그것이 왜,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일어나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도시쇠퇴(urban decline)’라는 현상이 시간성을 가지는 동태적 과정이기 때문일 것이지만, 이는 분명 성숙한 계획가가 가져야 할 태도

에 틀림없다.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은 ‘통합적’인 접근에 대한 옹호 경향이다. 도시의 재생은 물리적 개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제반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통합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거는 건고하지 않은 채 서구의 접근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도 있지만, 통합적 접근의 자연스런 수용은 보다 균형 잡힌 도시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 환경대학원도 정부의 도시재생 R&D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도시쇠퇴 문제를 조사하고 외국의 도시재생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 도시의 쇠퇴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해외제도에 대한 주제적 성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GSES 칼럼



조경진 교수

작은 데서 출발한다: 우리동네숲 운동의 의미

1000m² 사이의 넓지 않은 땅들이지만 이런 곳들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 힘든 과정들까지도 소중했다.

작은 공원이 주민들을 소통하게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매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의미 깊다. 동네숲을 완성한 후 자발적으로 마을잔치를 열었던 동네도 있고, 동네숲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한 후 마을환경을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는 문화가 형성된 동네도 있다. 우리동네숲이 만들어진 후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있었다. 포장만으로 무미건조한 등교하는 길에 숲이 조성되면서 녹색통학길로 변모한 경우도 있고, 동네숲이 조성된 후 인근 주택가의 소음이 10dB 정도가 줄어든 사례도

있다. 동네숲은 작지만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냈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11개소의 우리동네숲을 만들었다. 면적으로 4,382m²이고 1만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였다. 교목 1그루가 1톤의 CO₂를 흡수한다는 기준을 따르면 700여 톤의 CO₂를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주변의 온도를 낮추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처방이 되어 주기도 한다. 기후변화의 시대에 우리동네숲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사는 도시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동네숲 운동은 서울에서 추진하는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에 비해 세간에 주목받지도 못하고, 단기간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

지도 못한다. 작은 데서 출발하다 보니 그 결과도 소박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이벤트를 지향하고, 스펙터클한 이미지에 치중하는 과시형 도시프로젝트에는 결여된 가치가 존재한다. 우리동네숲 운동은 자연을 다루면서, 과정을 중시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은 눈에 보이는 시설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으로만 완성되지는 않는다. 시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스스로 변화하게 하고, 사는 터전에 애착을 가지고 가꾸어갈 때 이루어진다. 적은 돈이지만 나무 심는데 기부하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 동네 숲 가꾸는 자원봉사도 해보자. 녹색문화도시로 가는 길은 작은 데서 출발한다.

2008년 12월 18일 서울시 의회 회의실에서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주최하는 ‘참여형 도시공공공간 디자인 워크숍’이 열렸다. 2008년 5곳의 우리동네숲을 만드는 데 참여한 기부자, 전문가, 학생, 공무원, 주민들이 모였다. 동네숲을 만드는 데 서울시와 산림청이 자부리땅을 제공했고, 많은 기업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자원봉사로 일했다. 일 년여 동안 각자 일한 과정을 공유하고 회상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적잖이 감동했다. 120m²에서



SNU GSES lette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I n d e x

2면 [환경대학원 교육 40년 기념행사]

환경대학원 동문의 밤 행사
환경대학원 UI (University Identity) 및 UI Application Design
서울대·지바대 국제공동워크샵
대한민국 신진조경가 대상 설계공모전 기획/개최
도시재생 국제세미나
환경대학원·강동구 협약연구 최종 발표회

3면 [서울대학교 뉴스]

(가칭)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세미나
해매스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기획연구결과

4면·5면 [인터뷰]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인터뷰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인터뷰

6면 [환경대학원 소식]

[교외교육]
환경계획학과: 중국 북경, 천진
환경조경학과: 제주도
신임 교수 임용

7면 [도시환경·교위 정책과정 소식]

김문수 경기도지사 특별강연사)CEO지속가능경영포럼 송년모임
SGS 동창회 2009년 해외도시 답사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8기 출범식 그린장학금 신설
CEO지속가능경영포럼 송년모임 이승한 고위과정동창회장 홈플러스 그룹 확장으로 취임
2009년 해외도시 답사

8면 [교수 칼럼]

김광중교수: 도시재생에 대한 단상(斷想)
조경진 교수: 작은 데서 출발한다: 우리동네숲 운동의 의미

알림

동창회비는 동문간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동창회 활동과 모교 재학에 대한 장학 사업에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농협: 079-01-412320
예금주: 서울대환경동창회
종신회비 24만원, 연회비 2만원

*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뀌신 동문께서는 동창회 사무실(880-566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대학원 교육 40년 학술대회: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마련

환경대학원 교육 40년을 맞이하여 지난 2008년 10월 10일 “한국의 국토·도시·환경과 공공계획: 역사적 성찰과 미래전망”이란 주제로 학술대회가 학계, 동문,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공공계획의 역사적 성찰’ ‘우리나라 공공계획의 위기와 과제’ 등 2개의 주제에 대해 서울대 박물관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제 1부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공공계획을 ‘국토·도시·교통·환경관리·조정·도시 설계’의 6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 서울시립대 권원용 교수, 아주대 오영태 교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희성 연구위원, 서안 조정설계 정영선 대표, 홍익대 변영진 교수가 각 분야를 대표하여 지난 40년 동안의 흐름을 성찰하는 진지한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는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다양한 자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공공계획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에 관련하여 대단히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제 2부는 중앙대 하성규 교수를 비롯하여 교육·연구·실무 분야별로 단국대 김현수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박사, 미래 E&D 백운수 대표의 발제가 있었고, 청주대 조철주 교수,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 한양대 이창무 교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기연 소장, 가원조정기술사사무소 이민우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의 토론은 매우 솔직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쏟아졌다. 계획과 시장의 역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란 관점에서 도시계획의 정체성에 대한 현실 진단에서부터 인문사회적 특성과 공학적 특성, Specialist와 Generalist 육성 등 교육·연구의 현안 과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계획지상주의나 장기적 계획의 남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와 함께 계획가의 위상이 단순 기술자나 인·허가 업무처리자로 전락되는 현실에 대한 개탄과 자성이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물리적 해결 방식에 의존하기에 앞서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동시에 그동안 학계가 계량분석 등 계획의 지원분야에 대한 교육·연구에 치우쳐 도면을 읽는 능력 등 실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에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40년간 공공계획을 선도해왔던 환경대학원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데 값진 계기를 마련해준 귀한 자리였다.

열린 소통의 장으로 확장된 갤러리 전시



환경대학원 교육 40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준비된 갤러리 행사는 기념일에 시작하여 1주일간 전시되었다. ‘환경대학원의 갤러리화’라고 할만큼 전시회는 대학원 건물 1층부터 4층까지의 동선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동행 갤러리 개념으로 연출했다. 또한 새롭게 리모델링한 3층 전시실은 디지털 전시기법을 시도하는 Digital Media Project관

으로 활용해 방문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학생들의 졸업논문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조경, 도시설계, 건축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특별작품을 출품하여 총 61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풍성한 볼거리로 전시 콘텐츠의 내실을 기했다. 이 같은 전시기획은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학생들은 전시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발전과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대학원 동문의 밤 행사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 高建, 金利煥, 金秉麟, 全烘奎, 鄭運經 동문



환경대학원 교육 40년 학술대회 이후 동문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 동문의 밤 기념식은 새롭게 리노베이션된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김기호 원장의 식사로 시작되어 환경대학원 총동창회장인 강길부 국회의원, 고위정책과정 동창회장인 이승한 홈플러스 그룹 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동문의 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자랑스런 동문상을 시상하는 순서였다. 우리나라 공공계획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과 탁월한 능력을 발

휘하여 환경대학원의 긍지와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5인을 자랑스런 동문으로 선정하였다. 수상자는 고건(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김이환(이영 미술관 관장), 김병린(미라보 건설(주) 회장), 전홍규(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운경(환경대학원 고위과정 총동창회 사무총장) 동문이다.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바베큐 파티까지 준비된 축하연회 자리에서 만찬을 즐겼다. 만찬 이후 2층 P&C Hall에서 성악 듀엣과 재즈팀의 공연을 즐기면서 교수, 동문, 재학생이 함께 와인파티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환경대학원 구성원들간의 정겨운 만남과 유대 강화를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는 원장의 감사인사를 끝으로 정겨운 동문의 밤 행사를 마쳤다.

환경대학원 UI (University Identity) 및 UI Application Design

지속가능성과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 환경대학원 UI개발

환경대학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2008년 하반기에 뉴욕의 유명 그래픽디자인회사인 'Chermayeff & Geismar'에 의뢰하여 대학원 고유의 UI와 UI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안을 개발했다. UI는 서울대학교 정장을 변형하여 환경대학원의 명칭을 강조할 수 있도록 로고의 형태를 단순화했으며, 지속가능성과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대학원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에버그린 색상을 사용했다. 환경대학원 UI는 교수,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들의 품평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티셔츠, 다이어리, 머그컵, 명함과 편지지, 봉투 등의 문구류와 휘장에도 U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대·지바대 국제공동워크샵

환경조경학과는 지난 2008년 10월 28일-31일 일본 지바대학교 건축 및 도시과학 대학원과 함께 도시공간연구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양 학교 교수들의 지도아래 석박사과정 30여명이 '몽유북촌(夢遊北村)'이라는 타이틀로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전통과 현대의 공진이라는 관점에서 진지한 성찰과 유쾌한 상상을 통해 자유롭고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번 공동 워크샵은 특별히 환경대학원 교육 40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본 대학원 고위과정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윤세현)의 협찬을 받아 진행되었다. 이 워크샵을 통해 양 학교의 학술교류와 국제적 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신진조경가 대상 설계 공모전 기획/개최

2008년 11월 17일 제2회 대한민국 신진조경가 대상 설계공모전 시상식이 있었다. 이 공모전은 성종상 교수가 활동하였던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의 추진의제 중 하나로써, 한국 조경설계의 대내외적 환경을 개선하고 젊고 유망한 신진조경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환경조경학과에 재학 중인 우정범, 변준식 군이 2등상, 졸업생 이상수, 손원진(신화건설팀)군이 각각, 그리고 이병우, 전진현, 이혁군이 입선에 각각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성종상 교수는 올해까지 2회 동안의 수상작품들과 심사평 등을 묶어서 책으로 출간하여 모든 참여자들과 유관기관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도시재생 국제세미나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주최한 도시재생 국제세미나가 2009년 1월 22-23일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의 R&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외 도시재생의 사례를 발표하고 국내 도시재생에 적용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영국, 미국, 일본의 도시재생사례에 대한 발표자는 영국 버밍햄 대학의 Peter Lee교수와 경신원 교수,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Cuz Potter와 Daniel Steinberg, 일본의 Shigeru Satoh, 박희윤, Kyoko Imamizo, Hiroshi Saito, Naomi Uchida였다. 도시재생사업단의 임서환 단장, 서울대 김광중 교수, 이영성 교수, 충남발전연구원의 이인회 박사가 국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환경대학원-강동구 협약연구 최종발표회

지난 2월 10일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정책연구' 최종발표회가 있었다. 강동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발표되었다. 김기호 원장은 "강동구는 도시개발에 있어 한강변에 위치한 다른 구들과 비교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Urban Infrastructure를 잘 구축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기존의 개발방식과 차별화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공 인프라 개선하는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안하였다. 이해식 구청장은 강동구를 서울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뛰어난 구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가칭)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

서울대학교 본부 직할의 (가칭)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소' (AIEES:Asian Institute for Energy,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New Vision and Strategies of Research Institut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 하에 지난 2008년 10월 14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 예일대의 Christine Kim 교수는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환경성능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연구

기관의 운용전략을 논의했다. 동경대의 Keisuke Hanaki 교수는 Sustainability Science를 위한 통합연구체계를, Common Current의 Warren Karlenzig 대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논의했다. 2부에서는 보스톤시의 Kairos Shen 도시계획국장이 지속가능한 보스톤을 만들기 위한 도시설계 사례와 미래 비전을, 북경대의 Huang Yi 교수가 동북아시아의 수자원 관리 체계를 발표했으며, 2부 마지막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기호 교수가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

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고철환 교수는 (가칭)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정부, 지역사회, 산업계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을 주문했으며, 윤여창 산림과학부 교수는 다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영대학의 조동성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기업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한김벌리의 김종렬 교수는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환경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날

(가칭)'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축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영상 메세지와 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의 축하영상 메세지가 전달되어 세미나의 의미를 한층 더 높여주었다.



헤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기획연구결과

사회적 현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

헤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에 환경생태적 재난이 발생하였다. 서울대는 사회적 현안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 4월 부터 시작된 '서해안 생태환경 프로젝트'는 2009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이번 사고의 합리적인 사후 대책을 세우고 그와 유사한 장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름의 해양 유출에서 초래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다학제적 연구들이 기획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세 개의 기획연구는 향후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중요 주제와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였으며, 사회대, 자연대, 공대, 농생대, 의대,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소속 교수들과 석박사 학생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방제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제종료시점을 중심으로
기름 유출 사고 후 지난 7월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태안의 해수욕장이 개장되면서 방제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 기름유출사고의 방제종료시점(cleanup ending point) 결정 시기와 방법, 결정 주체와 기준 등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방제종료 선언이 갖는 경제적·행정적 의미 만이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방제종료의 환경적·사회적 의미가 제대로 조명되고 있지 못하여 방제수준과 시기를 결정하는 실무협의회에는 비어업부문 지역주민과 환경 NGO, 환경부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방제종료의 다차원적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제종료의 기준과 시기, 참여 주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헤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건강영향평가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태안 지역의 환경손상 및 사회·생태계 변화가 주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 기름 유출사고에 있어서의 당시의 대비책의 방법, 결정 주체와 기준 등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방제 발생시 정부 기관 대응책, 보건의료계의 대응책 및 재해 발생시에 해당 주민의 대응책 등의 복합적 대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태안 환경보건센터의 설립과 활동 방향, 더 나아가 현재 누락되어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환경보건센터와 추후에 설립될 태안 환경보건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서해안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통합적 연구
10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주민들의 헌신적인 방제작업으로 오염된 해안은 대부분 표면적으로는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고로 황폐화된 생태계를 복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유류유출사고에 대한 현재의 긴급방제방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찰하고, 긴급방제와 초기대응으로서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수차례 걸쳐 이루어진 생생한 현장 방문을 경험한 토대로 하여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해안 유류유출 긴급방제 체계의 재구성', '자연친화적 해안 생태계 복원', '자연생태계 유류오염 장기 모니터링'의 세 가지 주제 안에서 총 13개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였다.

INTERVIEW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 환경과 경제 모두 살린다 ”

‘그린뉴딜과 환경정책’ 21세기 인간·자연·국가가 상호 공존하기 위한 해법과 방향



Q. 환경부장관에 임명되신 지 3월이면 일 년이 됩니다. 임명되신 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셨던 사업이나 관심분야가 무엇이었습니까?

A.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촉진」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환경과 개발의 균형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바탕은 국민들의 환경 의식과 태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키워주기 위한 실질적인 환경 교육에도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Q. 과거와 달리 환경문제는 경제 문제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으로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그린’은 환경을 의미하고, ‘뉴딜’은 정부의 역할을 전제로 한 공공 투자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의미합니다. ‘그린 뉴딜’은 경제를 시장 메카니즘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비상 조치로 사회적 접자분과 환경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환경만의 논리를 주장할 수만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그린 뉴딜’을 위해서는 첫째, ‘그린 뉴딜’은 환경

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그린 뉴딜’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경제가 조금 호전되었다고 해서 ‘그린 뉴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그린 뉴딜’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린 뉴딜’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또는 병행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국가 단위로 보았을 때 국가 간의 협상, 제조업의 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생활혁명을 요구하는 문화적 전략으로써 기후변화예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민생활 및 의식의 전환을 위해 4대 분야, 49개 항목을 정리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습관을 바꾸기 위한 ‘친환경 운전 10계명’, 재개발, 재건축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 등이 있으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환경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전 세계의 경제 위기와 맞물려 ‘환경’은 소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문제로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의 환경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부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생활공감 정책들을 적극

적으로 발굴해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동네 놀이터 환경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어린이 및 영유아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지역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로 생활환경 진단 및 개선, 에너지 절감방안 조언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3천cc이하 일반화물자동차 소유 영세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감폭을 50%로 확대할 예정이며, 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현장 주변에 대한 석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환경부장관으로서 서울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아시아 지속가능발전연구소에 거는 기대와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향후 연구방향에 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환경대학원을 포함한 서울대학교가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사회에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하면, 이제는 한국 내부의 수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 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칭)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설립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대학교 차원을 넘어서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영역이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하기 때문에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우선 필수적이고, 화급한 부문부터 시작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대학, 연구기관에서도 본업적 차원에서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칭)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환경대학원 선배로서, 환경부장관으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환경대학원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과정, 주제, 논문 등을 통해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지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융합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환경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학제간 교육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며, 교육 부문에서 학문 간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교수님들과 후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캠퍼스는 환경대학원 내에 있지만, 제2캠퍼스는 졸업생들과 재학생, 그리고 정부와의 다양한 채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외연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정 구 현

“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는 앞으로 세계 최대의 화두가 될 것 ”



Q. 삼성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셨던 사업이나 관심분야가 무엇이었습니까?

A. 지난 5년 반동안 많은 부문에서 노력을 했지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첫째, 글로벌화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사회에서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란 연구의 결과물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소의 국제화란 ‘발신의 국제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SERI는 현재 영어, 중국어와 일본어의 website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SERI Quarterly라는 계간지를 영어로 발행하여 전 세계에 배포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연구 질의 획기적인 향상입니다. SERI는 Knowledge Hub for Creative Solutions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바탕을 둔 연구를 통해서 현실 문제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SERI의 연구 방향입니다. 그러자니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전공자가 머리를 맞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환경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금융위기가 발동에 떨어진 불

인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녹색 성장이 가장 각광을 받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선진국 정부는 거의 예외 없이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선투자를 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가 바로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것이며, 그로 인하여 앞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큼니다. 앞으로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은 오바마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소극적이던 입장을 바꿔서 이 문제에 적극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탄소시장과 같은 환경 관련 분야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아젠다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 바탕을 둔 연구를 통해서 현실 문제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SERI의 연구 방향입니다. 그러자니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전공자가 머리를 맞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민간연구소에 몸담고 계신 민간전문가로서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지속가능’이란 말은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좁게 보면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 즉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경제성장은 오래 못 간다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고, 다른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즉 균형발전의 관

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로 한 섹터나 부문만이 발전하고 다른 분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다면 이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만 잘 되서는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즉 ‘사회는 망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업만이 번성할 수는 없다’라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단순히 성장과 환경의 문제만이 아닌, 성장, 환경, 가치, 지역 등과 같은 넓은 개념의 균형과 상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서울대가 중심이 되어 (가칭)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 거는 기대나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A.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경험 등과 같이 한국은 아시아지역에 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1945년 이후 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성장한 국가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것을 주도할 수 있는 아젠다와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중국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느냐가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가칭)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는 국내로 국한된 시야를 넓혀서,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면 합니다.

Q. 급격한 경제·사회변화 따라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와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A. 서울대학교는 국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한 명성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통해 만들어 내고 있는 성과가 얼마나 한국사회나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측면에서 비교하고 평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빈곤문제, 세계질서의 형성 등의 이슈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제대로 연구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서울대학교 정도면 세계적인 지적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세계속에서 앞으로 어떤 화두를 던지고, 어떻게 지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환경계획학과 교외 교육

중국 북경 올림픽 및 징진지(京津北異)권 개발사례 답사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5명과 학생 23명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북경 올림픽 및 징진지(京津北異)권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환경계획학과에서 2006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의 하나이며, 2006년 중국 중경 및 샹하이, 2007년 일본 대마도 및 후쿠오카 답사에 이은 것이다. 답사단은 첫째 날은 중국 경제특구로 제3의 성장극이라 불리는

천진의 반하이 신구(滨海新区)를 둘러보았고, 둘째 날은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을 포함한 '올림픽 그린'을 방문하고 3000여년의 도시 역사를 지닌 북경을 한눈에 볼수있는 도시계획관을 방문하였다. 그 밖에 북경의 중심상업지역(CBD), 중국 IT의 상징인 중관촌, 차오웨이 SOHO 등을 답사하고 셋째 날은 북경의 공장지대를 재개발하여 상업적 갤러리와 카페로 탈바꿈한 798예술구, 천안문 광장, 특이한 형상의 공연장인 국가대극원을 방문함으로 아쉬운 2박 3일의 짧은 답사일정을 마쳤다.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기에 다소 짧은 일정이었으나 중국의 도시발전 모습을 통해 우리의 현안 및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제적 감각을 배울 수 있었던 답사였다.

환경조경학과 교외 교육

제주도 고유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체험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및 학생 52명은 2009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제주도의 자연경관과 최근에 조성된 여러 문화공간 체험 및 신입생 프레젠테이션과 친교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날은 태왕사신기 촬영

장을 테마파크로 구성한 파크 서던랜드, 해안절경이 아름다운 섭지코지, 20여 년간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사진으로 담은 사진작가 김영갑의 갤러리를 답사하였다. 둘째 날은 산굼부리와 이중섭 미술관과 문화공원, 아프리카 박물관을 방문했다. 셋째 날은 유리라는 콘텐츠를 다채롭게 활용한 유리박물관과 제주도의 다원 일대를 전시공간으로 꾸민 오설록 뮤지엄을 관람하였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제주도 고유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경험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조경설계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외국인 교수 2명을 포함한 전임교수 4명 신규 임용

환경대학원에서 2009년 봄학기부터 4명의 신입 교수가 강의를 하게 된다.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분야의 김경민 교수는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하바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환경관리 전공분야의 홍종호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외국인으로 환경조경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될 네덜란드 출신의 W. Kuitert 교수는 Agricultural University, Wageninge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조경설계 분야에 오랜 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뛰어난 업적을 갖고 있다. 또한 환경계획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될 레바논 출신의 Sofia T. Shwayri 박사는 버클리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도시계획 전공으로 중동지역을 포함한 제3세계 도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갖고 있다.



김경민 교수

전공: 도시계획
학력: 서울대 학사,
Univ. of California Berkeley 석사,
Harvard Univ. 박사
경력: Senior Real Estate Economist, Property & Portfolio Research, Inc US



홍종호 교수

전공: 환경경제
학력: 서울대 학사,
Univ. of California Berkeley 석사,
Cornell Univ. 박사
경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W. Kuitert 교수

전공: 조경 설계
학력: Agricultural University, Wageningen, Holland 학사·석사·박사
경력: Chief Researcher,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Garden Art and Historical Heritage



Sofia T. Shwayri 교수

전공: 도시계획
학력: American Univ. of Beirut 학사·석사,
Univ. of California Berkeley 석사·박사
경력: Assistant Professor, New York Univ., Visiting Fellow, Univ. of Oxford

교수 동정

황기원 교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시락(都市樂) 맛보기"(출판사: 다빈치)가 2월 중에 출판된다. 또한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경관의 해석", "교수 황기원이 자벌레가 되어 본 세상"이란 책도 발간 준비 중이다.

이희연 교수: 2008년 11월 15일 한국경제지리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2009-10년)으로 선출되었으며, 2008년 12월 5일 개최된 전국 지리학회에서 "대한지리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조경진 교수: 2008년 9월 21~23일까지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2008 International Urban Parks Conference에서 "Urban Parks Movement and Park Culture in Contemporary Korean Cities"라는 주제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 21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에서 "지속가능성과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환경대학원 2008학년도 졸업식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8학년도 졸업식이 2월 26일 오후 4시에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거행된다. 이날 졸업식에는 박사 1명, 석사 46명에 대한 학위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박사
환경계획학과
김동완(도시계획학 박사)

석사
환경계획학과

고범석 구형수 권용환 김용욱 김재호 남지민 박경옥 박금정 박재명 박정민 박주한 서명교 유영은 윤세형 이배성 이세은 이용미 이은미 이지연 이창주 이혜승 임호숙 정인택 정하용 최고운 최광현 최영은 최정민 홍정희

환경조경학과

강경아 고우용 김보현 김진욱 김창미 김희주 박성민 박주현 배연한 윤수진 이소은 이원미 임정연 전성연 조한진 한영훈 황진영

우수논문상

박정민 주택가격지수와 연계한 이자율 변동형 모건의 도입효과
이창주 비가산적 통행거리가 큰 구역 혼잡통행로 부가방안의 효과 분석을 위한 균형통행배정모형의 개발
정인택 도심 간선도로에서의 제한적 좌회전 신호운영에 따른 지체 완화 방안 관련 연구

김문수 경기도지사 특별 강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

2008년 11월 20일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김문수지사는 불모의 땅에서 기적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는 두바이의 성공전략과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우리나라 수도권현의 현실과 비교하여 설명한 후, 경기도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 특별 강연에는 이승한 SGS동창회장을 비

롯한 회원 100여명과 현재 진행 중인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8기 Fellow 및 환경대학원 교수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번 특별강연은 SGS동창회(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CEO지속가능경영포럼, 도시환경고위전문가과정) 회원들에게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Fellow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SGS 동창회 2009년 해외도시 답사



제8기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에서는 '빈곤과 지속가능발전'이란 주제로 미얀마의 주요도시인 양곤, 버가, 만델라이, 밍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환경·문화자원을 살펴보고, 경제·사회개발의 매개체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

성과 전략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답사에는 8기 Fellow들 뿐만 아니라 6기의 김광호 회장과 7기의 여용상 회장도 함께했고, 대학원에서는 이영인, 최명철 주임교수와 최막중 교수가 답사를 인솔했다.



그린장학금 신설

매년 1,700만원 장학금 수여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 동창회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사회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그린장학금'을 신설했다. 매년 1,700만원을 지급하는 그린장학금은 단순히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수혜자에게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는 경우 추가로 연구과제 수행비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련 정책수립기관에도 연구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그린장학금은 기업과 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

CEO지속가능경영포럼 송년모임

(사)CEO지속가능경영포럼은 2008년 11월 27일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송년회와 함께 8기 Fellow의 신입환영회를 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년모임에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김대식 교수님을 모시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란 주제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환경대학원 원장을 비롯한 CEO지속가능경영포럼의 주임교수와 졸업생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8기 출범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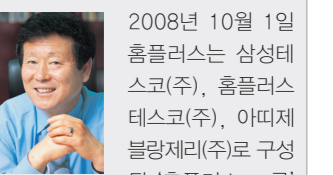
지난 2008년 10월 16일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제8기 출범식이 열렸다. 이번 과정에는 도시계획·설계, 건축, 조경, 도시개발·건설, 환경, 생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6명이 참여하고 있다. 본 과정은 향후 6개월간 도시·환경 문제를 아우르는 여러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9년 해외도시 답사

투스카니 와인과 함께 하는 Third Italy 이태리 중북부 중세~르네상스 도시답사

이승한 고위과정동창회장 홈페이지 그룹회장으로 취임



2008년 10월 1일 홈페이지는 삼성테크스코(주), 홈페이지테크스코(주), 아디제블랑제리(주)로 구성된 '홈플러스 그룹'을 출범하고 이승한 사장이 그룹회장으로 취임했다. 현재 환경대학원 고위과정(SGS) 총동창회 회장이기도 한 이승한 회장은 2003년 환경대학원의 'CEO지속가능경영포럼'을 수료 후 환경대학원에서 홈플러스의 '환경경영', '창조경영'등을 강의했으며 2008년에는 CEO지속가능경영포럼의 공동주임교수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고 있다.

2009년 해외도시 답사

투스카니 와인과 함께 하는 Third Italy 이태리 중북부 중세~르네상스 도시답사

◆ 목적 및 취지

-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Fellow들이 과정수료 후에도 자발적인 학습 및 탐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
- Fellow들간의 유대와 친목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

◆ 답사지역

베로나, 비센차, 베네치아, 페라라, 라벤나, 올비노, 산마리노, 볼로냐, 모데나, 친퀘테레, 피사, 피렌체, 산지미냐노, 시에나, 몬탈치노, 피엔자, 아씨시, 티볼리 지역과 세계 문화 유산

◆ 기간

2009년 7월 26일(일)~ 8월 3일(월) (7박9일)

◆ 비용 추후 확정

◆ 인솔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

◆ 문의 및 연락처

환경대학원 동창회
고진수 조교 (Tel. 880-5669)
최고전문가과정 김배 조교 (Tel. 880-8525)
※ 부부, 가족 또는 직원 참여 환영

<http://esgs.or.kr/>

고위과정 총동창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많은 참여와 조언 부탁드립니다.